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November 30, 2025, 10:30 a.m.

대강절 첫번째 주일 (Year A)

First Sunday of Advent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배 기도 Invoca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104 곧 오소서 임마누엘 O Come O Come Immanuel

C1030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A) The Days of Elijah

C1181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D) Come,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i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24:36-44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인자의 오는 때 When the Son of Man Would Come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C1235 주께서 높은 보좌에 (E) I Saw the Lord Exalted High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8 시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 Lottie Moon 크리스마스 헌금
-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25. 일자리를 잃고, 신앙 때문에 폭행당하며, 집이 불에 타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 장 20 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그 분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6. 방학기간동안 남아시아를 방문해 무슬림 전도를 하려고 자금을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 한 학생 그룹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복음 전도 방법을 배우는 동안,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또한 진리와 사랑을 전달하는 그릇으로 잘 준비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파송 교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남아시아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7. 네팔은 최근 폭우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로, 마을, 도시, 그리고 네팔 전역에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이 가장 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된 땅이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안전을 위해 그리고 속히 재건되도록 기도합니다. 슬픔에 잠긴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참된 위로를 발견하도록 기도합니다.
28. 북인도의 작은 산간지역에서 사역하는 한 목회자의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녀는 인근 지역 출신임에도 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공동체가 그녀를 외부인으로 취급해서 그녀를 쉽게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역 신앙 공동체에 자매들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녀가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주는 능력과 확신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그 지역으로 불러주신 분명한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도록 기도합니다.
29. 뭄바이의 흥등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신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따르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0. 남인도에서는 한 무리의 지역 신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6 개월 만에 세 배 늘어나고 새로운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침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잠재적인 박해와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서 침례 장소 선택하는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도록, 새 신자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해도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THE FIRST LESSON 이사야 ISAIAH 2:1-5

- 1 야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 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 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 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시편 PSALM 122

- 1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 2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 3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 4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 5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 7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 8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THE SECOND LESSON 로마서 ROMANS 13:11-14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 공부 초점: 깨어라!

생명의 말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로마서 13:11)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력이나 시계로 측정되는 연대기적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크로노스(chrono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적절한 때”, “알맞은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kairo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카이로스)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연대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깨어 있으세요. 분, 시, 일, 월, 년으로 측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인정하세요.

1. 바울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2. 하나님의 시간(카이로스)은 인간이 측정하는 연대기적 시간(크로노스)과 어떻게 다를까요?
3. 시간을 이 두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사람들이 안일함과 무관심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일정의 긴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전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은 두려움이나 떨림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종말의 때 만을 집착하며 염려하지 마세요. 대신 깨어 있으세요.

4.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사건적 시간과 연결된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순간에 윤리적으로 반응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로마서 13:12)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에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가 포함됩니다.

6. 이 어둠의 일 리스트에 또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요?
7. 빛의 일 리스트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3:14). 전쟁의 갑옷을 입는 대신 로마서 13 장에서 설명된 사랑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로마서 13:8, 10).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 그의 새 삶을 상징하도록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말은 이러한 침례의 언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옷이 아니라 침례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상에서 섬길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8.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9.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얼마나 긴박한 일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

팻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큰 날이었고,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어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가 뒤뚱을 지나며 그림자를 드리우고 이슬을 말려 주었습니다. 새벽이 밝아 온 이상,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10. 아침 일찍 깨어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11. 특별한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났던 날이 있었나요?

우리의 출신,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해가 떠오르며 시간을 보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이 새벽으로 넘어갈 때, 태양은 지평선 너머에서 빛을 비추며 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밝은 낮이 우리에게 완전히 찾아오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미루고 싶어 할지라도, 해를 다시 지평선 뒤로 밀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새벽이 오면 다시 밤의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믿음의 측면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순간부터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대중 앞에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게 밝은 대낮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 많은 한 남성은 아내와 데이트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데이트를 나가기 전, 그녀의 아버지는 둘에게 다가와 엄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라.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 차 뒷좌석에 같이 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12. 그 아버지는 딸과 데이트 상대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13.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상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믿음 실천하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깨어 있으세요. 우리는 삶을 잠든 듯 지나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로마서 13:8, 10). 그러나 사랑은 쉽게 또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이미지는 유익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전쟁의 언어나 침례의 언어이든,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그날의 옷을 입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옷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한 번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일입니다.

14.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은 당신의 삶에 무엇이 있을까요?
15. 이 본문이 당신을 어떻게 깨어나도록 자극했나요?

마지막 말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를 입게 기도하세요.

기도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으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24:36-44

- 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 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 41 두 여자가 멧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 43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 44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